

북한소설의 4·3 인식 양상

—양익선의 『한나의 메아리』론

김 동 윤*

차 례

1. 머리말
2. 작품의 개관과 구도
3. 인물 형상화와 4·3 인식
 - 1) 봉기 지도부
 - 2) 제주민중
 - 3) 경비대와 경찰
 - 4) 미군
 - 5) 북의 지도자
4. 맺음말

1. 머리말

1948년부터 1954년까지 해방 공간과 한국전쟁이라는 역사적 격변기에 진행된 4·3은 남북의 분단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건이다. 이는 다른 말로 하면 4·3이 북한과 어떤 식으로든 무관하지 않음을 뜻하는

*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통일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볼 때, 북한에서 4·3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해 파악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 될 수 있다. 특히 사회주의권 문학의 경우 반영론적 성격이 두드러진 점을 감안한다면, 북한문학에 형상화된 4·3은 곧 북한사회에서 인식하는 4·3과 직결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북한문학을 통해 북한의 4·3 인식 양상을 파악하는 것은 극히 자연스러운 일이 되는 것이다.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4·3에 대한 형상화의 경우 남한문학보다 북한문학에서 먼저 이루어졌다. 북한에서는 특히 4·3 발발 시기부터 한국전쟁 직전까지 기간에 4·3을 형상화한 작품들이 여러 편 발표되었다. 이때 나온 작품으로는 함세덕의 희곡 「산사람들」(1949~1950), 강승한의 서사시 「한나산」(1948)이 대표적이며, 안룡만의 「동백꽃」(1950), 박산운의 「노래」(1950), 임학수의 「남쪽 바다 섬을 생각하고」 등의 시에서도 4·3을 형상화하고 있다.¹⁾ 1980년대 이후에는 장편소설을 통해서 4·3이 구체적으로 다루어졌다. 김일우의 『한나산』(1986)²⁾과 양의선의 『한나의 메아리』(2000)는 그 대표적인 작품이다.

이 글에서는 최근에 발표된 양의선의 장편소설 『한나의 메아리』를 중심으로 북한문학에 나타난 4·3의 인식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양의선은 「거대한 날개」(1993) 등의 단편으로 남한에서도 비교적 잘 알려진 작가다. 1942년 9월 중국 산둥성에서 태어난 그는 해방이 되면서 귀국하여 5년 동안 서울에서 살다가 한국전쟁 때 인민군과 함께 북으로 갔으며, 북에서는 신의주 제1사범대학을 졸업하고 1974년 「랭동차 운전수」라는 단편소설로 문단활동을 시작한 중견작가다.³⁾ 『한나의 메아리』는 양의선

1) 신형기·오성호, 『북한문학사』(평민사, 2000), 113쪽, 125~126쪽; 안함광 『조선문학사(1900~)』(연변교육출판사, 1957), 401~404쪽; 이명재, 『북한문학사전』(국학자료원, 1995), 49~51쪽, 1116~1118쪽; 유종호, 『문학이란 무엇인가』(민음사, 1989), 129~130쪽 등 참조. 「산사람들」과 「한나산」에 대해서는 김재용, 「4·3과 분단극복—북한문학에 재현된 4·3」, 『제주작가』 제6호(실천문학사, 2001)에서 논의되었다.

2) 이 소설은 남한에서 『섬사람들』(힘, 1988)로 출간된 바 있다.

이 처음 쓴 장편소설로,⁴⁾ 이 작품이 북한에서 12부작 텔레비전 드라마로 제작된 사실⁵⁾이라든가 북의 평론가에 의해 “사상예술적 성과로 하여 (...) 조국통일주체의 성과작으로 우리 문단에서 응당한 자리를 차지한다”⁶⁾고 언급된 점을 보면 꽤 비중 있는 작품으로 평가됨을 알 수 있다.

3) 이명재, 앞의 책, 776~777쪽: 양의선, 「작가의 말」, 『한나의 메아리』(문학예술종합출판사, 2000), 430~431쪽 참조. 「작가의 말」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는 주체 31(1942)년 9월 27일 이국땅인 중국의 먼 남방 어느 한 도시에서 태어났다. 원래 부모들은 평양 태생이었다. 1930년대 초부터 ‘구두’, ‘대동강’ 같은 시를 쓰던 아버지는 직업을 구하지 못해 압록강을 건너 이국땅을 방황하다가 나의 태를 낳설은 땅에 묻게 했던 것이다. 잘못 찍혀진 운명의 시작은 광복이 되어서도 계속 이어졌다. 가까운 배길로 귀국한다던 일이 상해와 부산을 거쳐 서울에 와서 그만 귀향길이 막혀 버렸다. 미제에 의해 38선이 그어지고 분계선을 넘나드는 사람들은 가차없이 사격하라는 미군정의 포고령이 떨어졌던 것이다. 광복은 됐으나 우리 가정은 고향에 돌아와도 못보고 한 칸 다다미의 차디찬 방에서 보리죽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5년 동안을 살았다. 불기운 한 점 없는 캄캄한 겨울밤 귀여운 쌍둥이 누이동생을 차례차례로 잃었고 만누이는 충청남도 어느 방직공장으로 일자리를 얻으러 떠나갔다. 그 후 전쟁이 일어 인민군대와 함께 후퇴하다니 만누이가 어떻게 되었으며 지금 살아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다. 허나 혈육의 정은 어쩔 수 없어 아버지는 공화국의 품에 안겨 작가생활을 하며 딸을 그리며 조국통일을 열망하는 시들을 많이 썼고 나 역시 그 영향을 받아 이 분야에 관심이 크다 해야 할 것이다.”

4) 2000년 8월 10일자로 제1부가 출간되었는데, 제2부는 아직 간행되지 않은 것 같다. 제2부는 무대가 한라산에서 지리산으로 옮겨진다고 「작가의 말」에 밝혀져 있다. 여기서는 제1부를 대상으로 논의한다.

5) 다음은 「한나의 메아리」의 텔레비전 드라마 제작에 대한 신문의 보도 내용이다. “북한 조선중앙방송위원회는 최근 제주도 해녀의 삶을 소재로 한 12부작 TV드라마를 제작했다고 조선중앙텔레비전이 12일 보도했다. ‘한라의 메아리’란 제목의 이 드라마는 ‘제주도의 순박한 해녀 고진희가 자기의 생활체험을 통해 공화국(북한) 창건을 위한 선거에 제주도 대표들과 참가하게 되는 이야기를 실제 사실에 기초해 생동한 화폭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중앙TV는 말했다. 중앙TV는 “외세가 없는 고향땅 제주에서 사랑하는 혈육들과 끝없는 정을 쏟으며 눈물 없이 살고 싶었던 주인공 고진희의 소박한 꿈은 통일을 염원하는 북과 남, 해외의 조선민족의 가슴속에 6·15북남공동선언의 이념으로 메아리 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리안익이 연출을 맡고 공훈예술가 신정남 등이 출연하는 이 드라마는 곧 방영될 예정이라고 중앙TV는 전했다.”(「북한, ‘제주해녀’ 소재 TV드라마 제작」, 『한라일보』 2003년 1월 13일.)

6) 리용일, 「오늘도 들려오는 한나의 메아리—장편소설 『한나의 메아리』(제1부)를 두고」, 『조선문학』 2001년 8월호, 48쪽.

그러나 아직까지 남한에서는 이 작품이 지방지를 통해 소개되었을 뿐⁷⁾ 전혀 논의된 바 없다. 따라서 작품의 개요부터 정리한 연후에 인물 형상화 방식을 중심으로 북한문학의 4·3 인식 양상을 검토코자 한다.

2. 작품의 개관과 구도

이 소설을 이끌어가는 인물은 남한 출신의 '최준오'라는 김일성종합대학 역사학부 졸업생이다. 그는 졸업을 앞두고 제주4·3과 지리산유격투쟁에 관한 논문을 발표하게 되는데, 그 논문의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폭넓은 취재에 나선다. 그 과정에 미완성원고를 통해 일제강점기 강규찬의 활동과 고진히의 삶을 알게됨과 아울러 여러 증언을 접하면서 4·3 전후의 내막들을 파헤쳐 간다. 거기에는 최준오가 남에 두고온 애인의 사연도 얹혀 있었다. 이러한 작품의 내용을 각 장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서장: 1995년 공화국창건기념일을 앞두고 강규찬·고진히 부부 가족이 그들을 대신해서 공화국영웅칭호와 조국통일상을 받는 것을 본 나(최준오)는 그동안의 그들에 대한 편견을 자책하고 반성하는 뜻에서 1885년부터 수행한 취재와 조사내용을 근거로 소설을 창작키로 한다.

② 제1장 최준오: 1985년 김일성대학 역사학부 최준오가 「제주도4·3 인민봉기와 지리산유격투쟁의 역사적 의의와 교훈」이란 논문을 발표했는데, 변절자 때문에 광주에 수용됐던 지리산유격대원 100여 명이 학살됐다는 주장에 재미교포여인이 이의를 제기한다. 최준오는 학생부장 조언으로 취재차 '서귀포처녀'를 만나러 가기로 하고, 출발 전날 변절에 대해 알고 있는 서순구를 찾아갔다. 서순구는 재미교포여인에 관해 듣고서 광주수용소 건은 논문에서 빼리는가 하면 부선화의 편지에 당황한다.

7) 2002년 제주방북단에 의해 입수되어 『제민일보』에 소개되었다.

③ 제2장 미완성 원고: {1943년 3월 귀향한 강규찬은 바다에 빠져 죽으려던 고진히를 구해주고, 그녀가 정신대로 가거나 원치 않는 결혼을 해야 할 처지임을 알고는 형식상 결혼을 자청한다. 4월 3일 결혼식에서 리승진과 강규찬이 대면한다. 강규찬은 첫날밤 고진히와 동침하지 않고 백록담에 올라 1930년대 모슬포 비행장 건설 반대 투쟁의 와중에서 아내가 죽고 네 살 아들이 다리 다친 데 분개하여 다섯 명을 때려눕히고 일본으로 갔던 사실을 떠올린다. 도쿄의 방직회사 근무 중 김일성 장군의 보천보전투 소식을 접하고 인생관을 바꾼 강규찬은 파업을 주도해 반년간 옥살이했었다. 출옥 후 김일성 장군을 만나기 위해 백두산으로 향하던 그는 인천에서 주병포를 만나 고향에서 투쟁할 것을 권고받아 귀향한 것이다. 그는 리승진을 첫 동지로 규합키로 한다.}

④ 제3장 잊을 수 없는 그대 모습: 최준오 부모는 지리산유격대원으로 활동하다 희생됐는데, 그 정신적 후유증으로 동생 정순이 바다에 빠지려는 걸 일심이 구해줬다. 이를 계기로 가까워진 이들은 일본을 거쳐 북에 가기로 했으나 나중에 출발한 오누이는 일본 밀항에 실패했다. 그 후 정순은 행방불명되고 최준오는 강화도 군사기지 건설에 동원됐다. 월북했는데, 아무리 찾아다녀도 일심을 만날 수 없었다. 그는 결국 일심이 북에 없음을 인정한 대신 통일 노력에 진력키로 결심했다. 이렇게 과거를 회상하며 원산역에 내린 최준오는 일심이를 닮은 여대생을 다시 만나게 되는데, 그녀는 논문에 이의를 제기한다. 서귀포치녀 서흥란을 찾아간 최준오는 미완성 원고 뒤인 4·3전후 얘기를 듣는다.

⑤ 제4장 광복증은 울렸건만: {1948년 3월 리승진·오대건과 함께 제주도 투쟁을 주도하고 있던 강규찬은 아들 진성을 외면하며 착잡해한다. 그는 2년 넘게 고진히의 순결을 지켜주면서 리승진 등과 일을 도모하고 있다가, 광복 직후 '김일성장군환영준비위원회'를 결성하던 날부터 정식 부부생활을 하여 이제 아이 둘을 낳았으나, 정세가 불리하게 돌아가자 가정을 돌보지 않았다. 그 와중에 고진히는 곤경에 처한 부용세를 위해 대신 뼈라를 떼내게 되는데, 미군이 그 장면을 사진 찍었다가 신문에 내

는 바람에 남편의 질책을 듣는다. 충호는 서홍란과 가까워진다.)

⑥ 제5장 묵은 상처: {부선화에게 시비 거는 서청 패거리를 물리치던 절름발이 총각이 칼을 맞는다. 선화는 총각을 집으로 데려가 치료하면서 그가 강규찬 아들임을 안다. 이 사실을 안 고진희가 진성을 데려오겠다고 하나 강규찬은 반대한다. 다음날 진성도 규찬도 모두 떠나 버린다.}

⑦ 제6장 4·3인민봉기: {제주도당위원회에서는 논쟁 끝에 무장봉기를 결정한다. 오대진은 도당위원장을 강규찬에게 위임하며 떠나고 리승진이 유격대 총대장을 맡는다. 4월 3일 새벽 봉화와 함께 봉기가 시작되니, 미군정과 경찰은 크게 당황한다. 5일 부임한 계엄사령관 브라운 대좌는 초토화작전을 주장한다. 생포한 경찰정보원으로부터 조병옥의 밀정표식을 취득한 강규찬은 밀정 옷 입고 한림으로 간다. 거리에서 정세 살피던 그는 진성이 체포됐음을 알고는 조병옥에게 밀정인 척 접근해서 진성이 강규찬 아들이니 풀어줘서 돌아다니는 미끼로 쓰라고 한다.}

⑧ 제7장 피 흐르는 제주도: {지하신문 『혈하』를 추적하던 경찰은 종달리 색시에게 죄를 씌워 성폭행한다. 이에 남편이 경찰을 죽이고 마라도로 도망갔는데, 다음날 경찰들이 마을에 들이닥쳐 가옥을 불태우고 127명을 학살한다. 유격대는 종달리사건 보복 전투를 준비하던 중 벌써 누군가에 의해 경찰지서를 습격했음을 안다. 습격자는 진성으로 추정됐다. 유격대는 장례식이 있던 지미봉 전투에서 대승한다. 한편 리명철은 『혈하』가 북성중학교 등사기에서 인쇄된 것을 알고 교사들을 위협하는데, 고충호가 스스로 나타나 연행된다. 충호는 면회간 누나에게 등사기 숨긴 곳을 알려주며 일을 부탁한다. 부선화는 충호를 석방하는 조건으로 리명철과 결혼기로 하고 광주로 가는데 리명철이 약속을 어긴다. 김의렬은 서홍란을 통해 유격대에게 정화회담 요구 문건을 보낸다. 충호의 사형 소식을 들은 서홍란은 팻트릿치 고문관을 바다로 유인해 처단한다. 서홍란은 오성진을 만나 그 다음 얘기를 들어보라고 한다. 최준오가 떠난 뒤 해연이 서홍란을 방문해 부선화가 재미교포로 입국했음을 전한다.

⑨ 제8장 정화담판: {김달삼·김의렬의 정화협상이 타결됐으나, 오라

리사건 등으로 협상이 무효화된다. 5월 5일 비상군정최고수뇌회의에서 조병옥은 김의열을 빨갱이로 몰아가 연대장이 박진경으로 교체된다. 한라산유격대는 반선거투쟁에서 승리하지만, 시련에 처해지기도 한다.)

⑩ 제9장 해와 별 빛나라: 오성민은 서순구가 진실을 숨기고 있다고 주장한다. {1948년 7월 윗새오름 유격대지휘처에서는 라디오로 평양의 인민위원회 중계를 듣고 환호한다. 오대건이 선거위원회 업무를 수행케 된 후, 고진히가 연락원으로 오면서 강규찬과 만나는데, 그녀는 량신혜라는 가명으로 반선거투쟁을 벌여왔다고 했다. 평양에 보낼 대표를 추천하고 선거에 들어갔으나, 밀고로 인해 오대건 등이 처형된다. 강규찬은 선거업무차 마라도에 가려다가 체포된다. 브라운은 그를 회유하지 못하자 아들 진성을 보내 설득을 시도한다. 진성은 아버지 때문에 악마가 됐다고 원망하다 꺾이고 눈물 흘리고 규찬은 용서를 빈다. 다음날 고진히가 사형장에 다녀간 직후 강규찬이 휘파람 불자 말뚝이 이동하기 시작하면서 이수라장이 된다. 그 와중에 총성이 울렸는데 진성이 대신 맞아 쓰러진다. 강규찬은 결국 리덕구 등의 도움으로 탈출하여 평양에서 김일성에게 큰 격려를 받지만, 고진히가 보이지 않아 안타까워하던 중 뒤늦게 38선을 넘는 그녀와 재회한다. 그녀는 마라도에 가서 임무를 수행한 후 단신 월북한 것이다. 회의장에서 강규찬이 손을 잡아주자 그녀가 눈물 흘리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선포된다.} 오성민은 고진히의 최후를 목격한 부선화가 평양에 왔으니 만나러 가자고 한다.

이상에서 보듯이 이 작품은 크게 두 가지 이야기가 축을 이루어 전개되고 있다.⁸⁾ 최준오를 중심으로 한 현재의 이야기가 바깥에 있고, 강규찬

8) 리용일은 이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이 소설에는 크게 두 개의 사건선이 뻗어나갔다. 첫번째는 남조선 출신의 김일성종합대학 학생인 최준오가 4·3인민봉기에 관한 논문을 준비하면서 애인을 찾는 현재 생활이 펼쳐지는 사건선이다. 두번째는 강규찬 부부의 성장과정을 기본으로 한 제주도혁명가들과 애국적 인민들의 투쟁사실이 펼쳐지는 사건선이다. 시간상으로는 내용에서 서로 다른 두 사건선은 상대적 독자성을 가지고 뻗어가고 발전하고 교차되면서 통일애국투사들의 모습을 감동 깊게 형상하는 하나의

을 중심으로 한 과거의 이야기가 안쪽에 있는 구조로,⁹⁾ 두 이야기 축은 밀접하게 얽혀 있으면서 추리소설적인 구도로 진상을 추적하는 양상을 띠고 있다.

직접적으로는 안쪽에 있는 강규찬·고진히 부부를 중심으로 한 일련의 사건들이 4·3의 한복판에 자리잡아 있다. 1943년 3월부터 1948년 8월까지 5년여의 기간이 제주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9월은 평양(8월 해주 대회는 작품에 언급되지 않음)으로 옮겨갔다. 4·3이 북녘으로 이어지는 상황설정이라는 면에서는 강승한의 「한나산」과 비슷한 구도를 지닌다. 사실 4·3의 유형 참사는 일부 지도부의 월북 이후인 1948년 10월에 접어들면서 더욱 극심하게 벌어진다. 그런데 그런 비극적 사실에 이 작품의 초점이 맞춰지지 않고 그 이전까지로만 한정된 것은 단선 반대를 위해 봉기했고 통일독립을 위해 투쟁했음을 강조하려는 북의 의도에 기인하는 것이다.

즉 4·3에 대한 북의 시각은 민주기지론을 바탕으로 한 통일투쟁이라는 관점임이 확인된다. 「한나산」의 경우 “고만갑이 해주에서 열리는 인민대표자회의에 참석하는 것으로 설정된 것은 4·3항쟁을 인민공화국을 중심으로 하는 또 다른 분단국가의 성립에 필요한 요소로 간주하¹⁰⁾는 것이듯이, 『한나의 메아리』도 민주기지론¹¹⁾적 사고에 근거를 둔 통일독립의 관점을 기본 축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장’에서 〈조국통일상〉 수여식장을 내세우는 점도 4·3이 통일운동 차원의 투쟁임을 뚜렷이 부각시키려는 의도가 있음은 물론이다. 특히 다음과 같은 부분은 북한의

흐름으로 이어져 작품의 사상주제를 깊이 있게 해명하고 있다. 이러한 사건조직으로 제주도인민들의 투쟁이 가지는 역사적 의의와 교훈을 오늘의 각도에서 밝혀낼 수 있었다.”(앞의 책, 48쪽)

9) 안쪽 이야기의 경우 작품 개요에서 { }로 묶어놓았다.

10) 김재용, 앞의 글, 177쪽.

11) 민주기지론은 미국과 달리 소련의 후원 하에 있는 북한이 남한에 비해 전반적으로 혁명을 달성하기에 유리한 여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선 북한에서 민주기지를 건설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한반도 전체의 해방을 꾀하자는 논리이다. 김재용, 「민주기지론과 북한문학의 시원」, 『분단구조와 북한문학』(소명출판, 2000), 30~31쪽.

4·3 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로 여겨진다.

(...) 4·3인민봉기는 려수군인폭동으로 줄기가 이어졌고 계속하여 경상, 전라, 충청도의 삼남 800여 리를 휘감아 안은 지리산지대의 유격항쟁으로 확대되어 갔다. 지리산과 한나산 태백산 줄기들에서 조국통일의 기치를 들고 투쟁을 벌린 것으로 하여 미제와 리승만 역도들은 적극 추진시켜 오던 북침 전쟁을 1년 가까이 뒤로 미루지 않으면 안 되었다.(336~7쪽)

강규찬·고진히 부부를 내세운 이유는 이들이 상징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다. “지난날의 말몰이군과 해녀 부부, 수난 많은 인생길을 거쳐 오늘은 도당위원장으로서 4·3인민봉기를 주도한 강규찬 동지와 진실하고 순결한 해녀로서 해녀들 속에서 응당한 공적을 세운 고진히 녀성을 나란히 평양에 보내는 것”(375쪽) 등의 대목에서 그것이 확인된다. 각각 테우리와 해녀 출신인 점은 제주민중을 대표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요, 게다가 그들이 봉기를 주도하고 치열한 투쟁을 전개하다가 월북한 점에서 모범적인 혁명일꾼이라는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다. 북녘 사람들에 대한 남녘 사람들의 죄의식이 작품에 은연중 드러나기도 하는데, 이 역시 북한의 4·3 인식 방향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 20여 성상 만고풍상의 싸움길을 헤쳐오신 장군님을 우리 남조선 혁명가들은 제 고향에 모시지 못했습니다.”

전주에서 온 대표가 말쑤를 올리였다. 강규찬이 상시적으로 지니고 있던 생각과 꼭 같은 말을 그 대표가 윽게 말했다. 남조선에서 온 대표들 모두가 지닌 죄의식감, 심정의 괴로움을 장군님께서서는 잠시 웃음을 거두시고 그윽한 표정으로 음미해 보는 듯 싶으시였다.(403쪽)

인용문은 작품의 말미에서 남녘대표들이 김일성을 면담하는 부분이다. 북에는 인민공화국이 들어서고 있지만 남에는 그러하지 못하였고 따라서 남에서 투쟁을 맡았던 자신들로서는 죄책감을 느낀다는 것이다. 이렇게 남녘 사람들의 죄의식을 보여주는 것도 인민공화국을 중심으로 하는

정부수립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한편, 이 작품을 읽다 보면 「서귀포 칠십리」 노래를 비롯해서, ‘빙떡, 곤떡, 곤밥, 비바리’ 등을 동원해 제주 풍속과 풍광을 그리려고 노력한 흔적이 보인다. 그래서 “구수한 향토적 정서가 안겨 오게 한 자연과 생활세태적인 묘사들은 작가의 묘사정신이 얼마나 높은가를 말해주고 있다”¹²⁾는 평가를 받기도 했으나, 잘못된 정보를 기술한 부분도 적지 않다. 해변마을에서 4~5시간 만에 백록담에 오르는 장면(55쪽), 정방폭포 위에서 뛰어내려 전복을 따내는 장면(116~117쪽), 남제주군 전체를 정의라고 부르는 것(120쪽), 제주읍에서 모슬포로 가는데 성산일출봉을 거쳐 가는 장면(121~122쪽), 고·양·부 삼성이 서로간에 혼인을 맺지 않는 엄격한 풍습이 있다고 하는 것(277쪽) 등은 “제주도에 한 번 가보지 못한 채”¹³⁾ 작품을 썼다고 작가가 말한 것처럼 취재부족과 관련이 있다.¹⁴⁾ 그리고 “열아홉 꽃나이에다가 날씬하고 탄탄한 몸매에 해녀들의 의상인 물적삼을 젓가슴이 팽팽하게 당겨입고 말 우에 앉아 있는 모습은 자유분방한 기상과 젊음이 넘쳐흘러 보기에도 눈부실 정도로 아름다웠다. 저고리 앞섬에는 단추 대신 전복조가비로 만든 패물이 매달려 한들거리며 강한 자주빛을 뿜고 있고 칠혹 같은 머리칼은 뒤에 한 번 동이였을 뿐 잔등에서 허리 밑까지 산발에 드리워 바람에 제멋대로 훑날렸다.”(116쪽)는 식으로 제주도과 제주사람을 지나치게 이국적이고 낭만적인 대상으로 인식한 부분도 있다. 이런 점들은 리얼리티를 떨어뜨림으로써 작품의 설득력을 반감시키고 있다.

역사적 사건 순서를 무시한 경우도 있다. 1949년에 벌어진 북촌리 사건, 도두리 사건 등을 5·10선거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기술한 것은 그 대표적인 예다. 이는 김달삼 등 봉기 지도부가 제주를 떠나기 전의 기간에 집약하여 4·3의 참상을 서술하려는 데서 초래한 잘못으로 보인다.

12) 리용일, 앞의 글, 48쪽.

13) 양의선, 「작가의 말」, 앞의 책, 431쪽.

14) 구덕국민학교(→구역국민학교), 사략봉(→사라봉), 성삼포(→성산포), 광음사(→관음사) 등 지명표기가 잘못된 곳들도 있다.

작가가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으면서도 의도적으로 시기를 조정했을 가능성도 있다.

3. 인물 형상화와 4·3 인식

이 작품에는 4·3과 관련하여 수많은 인물들이 나온다. 개중에는 물론 작가가 창조한 인물들도 있지만, 실존했던 인물들이 작중인물로 등장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물론 그 인물들은 4·3에 대한 북한측의 시각에 걸맞게 배치되어 움직인다.

1) 봉기 지도부

그동안 남한에서 이루어진 4·3소설에서는 4·3봉기를 주도한 인물들에 대한 형상화가 상대적으로 미약했다. 반면에 이 작품에서는 그들의 움직임을 밀착하여 보여준다는 점에서 흥미를 끈다.

봉기 지도부로는 주인공 강규찬을 비롯하여 리승진(김달삼), 리덕구, 오대건 등이 등장한다. 이들은 모두 봉기를 주도한 실제 인물이거나 그러한 특정 인물을 모델로 삼은 경우들이다.

제주도 남서쪽 모슬봉 기슭 샘터마을에서 말몰이꾼(테우리)으로 자란 강규찬¹⁵⁾은 해녀인 정아와 결혼하여 아들 진성을 낳고 단란하게 살고 있었다. 그런데 1930년대 들어 일제가 마을에 비행장을 건설하면서 그가 반대투쟁에 나서게 되는데 그 와중에 아내가 죽고 네 살 아들이 다리 부

15) 실존인물 강규찬(姜圭贊)은 1910년 제주읍에서 태어나 1931년경 일본 오사카 천마방직에서 노동하면서 일본노동조합전국협의회에 가입하여 노동운동과 사회주의운동을 전개하던 중 1933년 6월 검거되었다. 해방 후에는 제주읍 인민위원회 부위원장이 되고 1948년 4·3봉기를 주도하다가 8월에 월북하였는데, 한국전쟁 때 사망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찬흠, 『20세기 제주인명사전』(제주문화원, 2000), 39~40쪽.

러지는 사고를 당하자 일본인 무리 다섯을 때려눕히고 마라도를 거쳐 일본으로 건너간다. 북해도의 탄광으로부터 짐꾼, 구들장이, 땀장이 등을 하다가 겨우 도쿄의 노다방직회사 기대수리공이라는 고정 직업을 얻은 그는 조선인 노동자의 혹사에 반감을 갖기 시작한다. 그러던 차에 김일성 장군의 활약상에 관한 소식을 접하자 인생관에서 결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되고 그 직후 파업을 주도하여 반년 동안 옥살이한다. 출옥 후 그는 귀향하여 항일투쟁을 벌이게 된다. 해방 후에는 '김일성장군환영준비위원회'를 결성하고 제주도당인민위원회 부위원장을 거쳐 1948년 4·3 봉기 때에는 위원장을 맡아 투쟁을 주도하다가 8월에 월북한다.

강규찬은 작품 속에서 특히 김일성의 영향력을 강하게 받는 인물로 나온다. 그는 증오와 복수의 출로를 찾아 일본에서 헤맬 때 김일성 장군이 이끄는 항일유격대가 보천보 전투에서 대승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인생관을 결정적으로 전환하게 된다. 방직회사 조선인 직공들의 파업도 그 소식에 힘입어 일으킨 일이었고, 옥살이 후의 귀향 투쟁도 김일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는 1940년대 초반 김일성 장군을 만나기 위해 백두산으로 향한다. 그런데 부산을 거쳐 인천에 이르렀을 때 그는 주병포라는 조국광복회회원을 만나 백두산행을 그만두고 고향에 돌아가서 투쟁할 것을 권고 받는다. “한나산을 성지로 하여 투쟁의 봉화를 올리고 장군님을 제주도에 모시는 길이 바로 장군님의 품에 안기는 길”(64쪽)이라는 것이었다. 그는 곧 귀향하여 고진희와 재혼하게 되었는데 “결혼식을 하고 가장으로 들어간 것도 제주도에 정착하여 싸움준비를 하기 위한 수단”(64쪽)이었다. 강규찬은 먼저 리승진과 동지적 관계가 되고 그에게 오대건을 소개받아 함께 일제에 대한 지하투쟁을 벌이다가 해방을 맞는다. 강규찬은 곧바로 '김일성장군환영준비위원회' 결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4·3봉기도 김일성의 뜻을 받드는 길임을 강조한다.

“(…) 우리는 리승만 따위가 누군지도 모르고 있었소. 인민들도 그 자가 어디서 무엇을 하던 자인지도 모르오.

우리 인민이 알고 있는 분은 조선에서 오직 한 분 김일성 장군님이시오.

여기 모인 동무들도 광복 전에 백두산전설과 보천보전투, 간삼봉전투 소식들을 들었을 거요. 나도 일본에 있을 때부터 장군님에 대한 전설 같은 얘기들을 많이 듣고 마음속으로 흠모하여 우러러마지 않았소. 광복 후에도 남에 있는 우리 인민 모두가 북에서 펴고 있는 그분의 정치가 이 땅에까지 하루 빨리 미쳐오길 학수고대하여왔소.

놈들이 왜 〈5·10단선〉을 서두르는가? 바로 남에 있는 우리 모두의 숭고한 리념을 짓밟개고 김일성 장군님의 정치가 남조선에 미치지 못하게 분렬의 장벽을 긋자는 거요.(…)”(181~182쪽)

4·3봉기는 제주 땅에도 항일투쟁의 지도자인 김일성의 정치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하는 통일운동이라는 것이다. 김일성의 뜻을 받들어 분렬의 장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강력한 전민무장투쟁이 유일한 길이라고 그는 주장한다.

강규찬은 이 작품에서 4·3무장투쟁을 가장 강력히 주장한 인물이다. 그는 정치투쟁 노선을 견지하는 오대건을 거세게 몰아세우고 당직에서 물러나게 한다. 이처럼 강규찬은 타협을 모르는 성격이다.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에서 두루 그러하다. “인정이 결코 자신이나 가정 그리고 이 세상을 지킬 수 없다”(115쪽)고 믿기 때문에 처자식을 돌보지도 않는다. 하지만 그런 그로서도 작품이 진행될수록 혁명이나 투쟁도 인간성을 수반해야 올바르게 이를 수 있는 것임을 점차 깨닫게 된다. 작가는 결국 강규찬을 바람직한 사회주의적 인간상으로 변모시켜 놓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리승진¹⁶⁾은 김달삼의 본명이다. 소설에서는 4·3 전까지는 리승진으로, 봉기가 시작될 때부터는 김달삼으로 칭하고 있다. 그는 제주읍 북성중학

16) 실존인물 이승진(李承晉)은 1924년 대정면 영락리에서 태어났는데, 김달삼(金達三)은 그의 가명이다. 대구심상소학교와 교토의 성북중학교를 거쳐 도쿄에 있는 중앙대학 1년을 수료하였다. 해방 후 대정중학교 교사로 재직하면서 남로당 제주도당 조직부장과 제주도당책이 되었고 4·3 때는 군사부 책임자가 되었다. 1948년 8월에 월북하여 헌법위원회 위원으로 선정되었다. 인민유격대 태백산지구 총수가 되어 유격투쟁을 벌이다가 사살된 것으로 알려졌다. 확실치는 않다. 위의 책, 102~103쪽.

교 교원이면서 일제 때에는 지하 투쟁을 전개하고, 해방 후에는 정보를 빼내기 위해 9연대 미군군사고문 통역관으로 활동하다가 4·3 때 한라산 인민유격대장을 맡았으며 8월에 강규찬 등과 함께 월북한다.

리승진은 고충호의 담임선생이었던 인연으로 그의 매부인 강규찬과 동지적 관계를 맺는다. 강규찬의 눈에 그는 “방금 스무살을 넘겼음직한 저 생신한 나이에 때이르게 찾아온 사색적이고 침착한 모습과 거동”(48쪽)으로 첫인상이 비취진다. 그는 인민유격대장으로서 영웅적인 면모를 드러내면서도 비교적 인간적인 체취가 있는 인물로 부각된다.

고진히 여성은 얼마나 마음씨 착하고 순결한 여자인가. 그런 여성을 사랑하지 않는 강규찬을 이해할 수 없었다. 과연 우리의 투쟁이 가정적인 단란이나 사랑, 순결, 인간성과 같은 감정들을 배제한 것인가. 오늘의 가혹한 정황에 인간의 본성이 굴종당하는 그런 투쟁을 리승진은 인정할 수 없었다. 우리가 바라는 미래도 그저 소유형태나 바꿔놓고 무산자가 주인이 되어 사회적 부를 향유하는 사회를 만들어놓는 것만일가. 계급투쟁의 가혹성에 방자해서 보편적인 인간의 량심과 의리, 사랑과 믿음의 감정들이 도외시된다면 우리 투쟁의 신성함과 량만은 어디에서 찾겠는가. 인간의 본성적인 감정들이 우리의 활동과 투쟁 과정을 추동하고 움직여 나가는 속성으로 될 때 그리고 그 투쟁과정에 완성되어 갈 때 오늘의 삶도 투쟁도 참다운 것으로 된다고 믿고 싶었다. 자기의 신념만을 절대적인 진리로 인정하고 보편적인 인간성을 도외시하는 강규찬의 견해에 그는 찬동할 수 없었다.(96쪽)

강규찬이 투쟁에 전념하면서 아내에게 지나치게 냉담한 데 대해 리승진은 마뜩잖게 여기고 있다. 인간의 보편적인 감정들이 투쟁 과정에서 추동하고 움직여 나갈 때 그 삶과 투쟁이 참다운 것으로 된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렇게 인간적이면서도 합리적이며 영웅적인 인물로 그려진 리승진은 작품의 말미에 나오는 김일성의 품모와 띄 유사한 점이 있다. 강경투쟁만이 능사가 아니라, 인간성이 전제된 투쟁일 때 진정으로 바람직한 세상이 된다는 작가의 메시지로 읽혀진다. 이런 메시지가 강조되고 있음으로 인해 그나마 이 작품이 나름대로 호소력을 지니게 되지 않으나 생각된다.

오대건은 오대진¹⁷⁾을 모델로 삼은 인물인데, 실존인물과는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적지 않다. 특히 실제와는 달리 1948년 지하선거 활동 과정에서 밀고 때문에 체포되어 사형되는 것으로 나온다. 소설에서 그는 리승진 아버지 리세훈의 오랜 지기로서 둘이 함께 제주도에서 사회주의의 색채를 띤 최초의 모임이었던 '반역자구락부'에도 함께 참가하였고 제주농업학교 학생들의 동맹휴업을 선도하기도 하였다. 1930년대 해녀투쟁에도 그의 영향력이 컸으며 일제말기 강규찬이 귀향한 후에는 리승진 등과 더불어 지하에서 항일투쟁을 전개한다. 해방공간에서는 제주도당인 민위원회 위원장과 '김일성장군환영준비위원회' 위원장을 맡는다. 오대건은 무장투쟁을 주장한 강규찬 등과는 달리 정치투쟁노선을 내세운다.

“무기를 잡고 산에 오르는 사람은 기껏해야 몇 백 명, 몇 천 명을 넘지 못할 거요. 제주도민은 30만이요. 이들을 어떻게 당일날 선거에 빠지거나 반대 투표하도록 조직동원하는가가 문제요. 동무는 무장봉기가 합법적인 정치투쟁의 가능성을 가져올 것처럼 말하는데 나는 믿지 않소. (...) 적수공권인 인민들을 그런 운명적인 궁지에 몰아넣고 어떻게 하자는 거요? 놈들도 기관총과 대포를 내걸어 놓고 선거에 응하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공갈을 해댈 거요. 그러면 백성들은 폭력과 폭력의 새틈에 끼우게 되는데 우리들은 그럴 수 없소.”(183쪽)

오대건은 섬에서 벌어질 처참한 유혈과 희생을 염두에 두고 전민무장투쟁을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그의 주장은 결국 관철되지 않았다. 전민무장봉기가 결정된 뒤에 오대건은 스스로 조직개편을 제기하고 도당위원장을 강규찬에게 위임하였다. 그런 그는 강규찬에 의해 축출된다. 하지만 작가는 여기서 오대건을 사라지게 하지 않고 몇 개월 후 지하선거를 앞두고서는 '김일성장군환영준비위원회' 명의로 선거위원회 업무를 수

17) 실존인물 오대진(吳大進)은 1898년 대정면 하모리 출신으로 1919년 3·1독립운동 이후 민족주의 운동에 관여하던 중 사회주의 운동으로 전환하여 항일투쟁을 전개했다. 1945년 건국준비위원회 제주도위원회 위원장이 되었고 1947년 당 활동을 소홀히 한다는 이유로 제명되었고, 같은 해 제주도파업투쟁위원회를 지휘하다가 1949년 일본으로 피신해 살던 중 1979년에 사망하였다. 위의 책, 295~296쪽.

행케 해 달라는 서한을 강규찬에게 보낸다. 일을 도모하던 오대건은 약방 집사의 밀고 때문에 체포되어 사라봉에서 처형당한다.

강규찬·리승진·오대건은 '삼두마차격'(90쪽)이라는 등 주도적 인물로 나오는 반면, 리덕구¹⁸⁾는 부차적 인물로 그려진다. 리덕구는 신정리 출신 제1지대장으로 나오는데, 강규찬이 모슬포에서 경비대에 붙잡혀 처형되기 직전 탈출을 도와주는 역할을 수행기도 한다. 강규찬·리승진 등이 북으로 간 이후에 제주도에 남아 있던 리덕구 행적에 관해서는 소설에서 무관심하다. "관골이 두드러진 농군 같은 너부죽한 얼굴에 어쭙은 미소를 짓고 토의안전과는 동떨어진 순풍을 외웠다."(246쪽)는 부분에서 알 수 있듯이, 리덕구는 용의주도함이나 냉철함과과는 거리가 있는 인물로 등장한다.

제주출신 작가들이 대개 이덕구를 긍정적으로, 김달삼을 부정적으로 그리는 것¹⁹⁾과는 꽤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제주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봉기를 일으키고 나서 섬을 떠나버린 김달삼에게는 반감을 품으면서도, 제주에서 최후를 맞은 이덕구에게는 나름대로의 호감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제주사람들의 희생보다는 인민공화국 창건이라는 명분에 기여한 사건으로 4·3을 자리매김하고 싶어하는 북한의 입장에서는 자연히 이덕구를 소홀히 처리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2) 제주민중

이 작품에서는, 대부분의 제주 출신 작가의 작품에서와는 달리, 토벌대와 무장대 사이에서 좌충우돌하는 제주민중들의 양상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고진희, 서홍란, 보패, 진 노인, 장화순 등은 제주민중의 입장으로

18) 실존인물 이덕구(李德九)는 1920년 조천면 신촌리에서 태어나 오사카 일신상업 학교를 거쳐 입명관대학에 재학 중 학병으로 입대해 일본군 소위로 복무하다가 해방을 맞았다. 4·3 때는 무장대 지대 책임자로 활동하다가 김달삼이 월북한 후 사령관이 되었는데 1949년 6월 토벌대에 사살되었다. 위의 책, 321쪽.

19) 특히 한림화의 『한라산의 노을』(1991)에서 이덕구에 대한 영웅적 형상화가 두드러지며, 오경훈의 『침묵의 세월』(1997)에서도 김달삼보다 이덕구가 좀더 긍정적인 인물로 그려졌다.

설정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고진희와 서홍란 같은 경우는 유격대 연락원 등을 맡아 활동하고 있어서, 당시의 전형적인 제주민중의 모습으로 보기는 어렵다. 영문을 모른 채 희생당한 다수의 양민들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다.

고진희²⁰⁾는 사랑과 인정을 매우 소중히 여긴다. 그래서 남편 강규찬에 대한 원망을 많이 한다. 진희는 “사랑과 인정이 없는 세상을 인정하지 않”(115쪽)는다는 여성이다. “세상이 아무리 험한 판이여도 사람은 본성에 있어서 진실과 우의, 사랑을 찾고 그 속에서만 자기의 삶과 생활을 찾는 것이지 결코 증오와 불신, 서로의 암투와 살륙 경쟁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고 믿고 싶”(245쪽)어하는 심성이 고운 인물인 것이다. 인정 많은 그녀였지만 경비대의 요청에 따라 일본군이 바닷속에 버리고 간 무기를 건져주는 등 시대 흐름에 관해서는 펍 무감각하다. 그러나 그녀는 동생 충호가 처형되고 나서 시대 문제에 적극 파고들어 정세를 읽어나가면서 투쟁의 대열에 들어선다. 그녀는 충호가 제작하던 지하신문 『철하』를 간행하는가 하면 해녀들 속에 들어가 량신혜라는 가명으로 반선거(5·10선 거부대)투쟁을 전개한다. 고진희의 희망은 결국 거시적으로 변모한다.

“이제 우리가 공화국을 세우면 우리 고향 땅에도 김일성 장군님을 모실 수 있겠지요? 당신은 도당위원장이니까 아버지장군님을 백록담에도 안내하구 들판에 뛰노는 말떼들도 보여드릴 수 있겠지만 저는 그때 해녀들과 함께 산초초 무성한 깊은 물에 들어가 섬도 따고 해삼도 건져내어 섬죽이랑 끓여 드리구 해삼회를 쳐드리겠어요. (...)”(372쪽)

고진희는 지하선거를 위해 남편을 대신해서 마라도까지 간다. “공화국을 세우는 일인데 한 사람도 빠져선 안 되”(417쪽)겠다는 판단 때문에

20) 소설에는 ‘고진희’로 되어 있는데, 실존인물은 ‘고진희(高眞姬 또는 高晋姬)’로 표기된다. 고진희는 1911년 제주읍 삼도리 태생으로 1946년 조선공산당 제주도당 부녀회장을 지냈으며 1947년 3·1절 시위사건으로 체포된 바 있다. 4·3 때 남편 강규찬과 함께 월북하여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기 대의원을 지냈으며, 남하하여 빨치산 활동을 하다가 1951년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찬흠, 앞의 책, 84쪽.

일곱 가옥에 열너댓 유권자밖에 없는 섬에 홀로 건너간다. 그리고 천신만고 끝에 선거명부를 들고 제주도를 빠져나와 하태도를 거쳐 후대산에 이르고 강과 산을 넘어 38선을 통과하기에 이른다. 말하자면 투쟁과 명분을 중시하는 강규찬과 인간적인 면을 중시하는 고진희가 하나로 통합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서귀포처녀’로 불리는 서홍란은 뛰어난 능력을 지닌 미모의 해녀였다. 그는 서귀포의 정방폭포에서 “스물네 메터가 넘는 우에서 하얀 물기둥을 드리운 폭포 우를 검은 머리카락을 펼치고 해연처럼 곧장 바다로 날아 내리”고는 능숙한 솜씨로 전복을 따낼 정도로, “정방폭포의 전설을 현실로 전환시킨 바다의 공주”(116~117쪽)로 그려진다. 그는 고충호와 애인 사이가 되어 유격대 연락원으로 활동한다. 경비대의 4·28회담 요청 문서도 그녀를 통해 전달되는 것으로 나온다. 그녀는 특히 사랑하는 고충호가 처형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는 미경찰고문 팻트릿치를 바다로 유인하여 처단하는 대담성도 보여준다.

그녀는 현재 원산에 거주하고 있는데 어떤 경로로 월북한 것인지는 제1부에 나타나 있지 않다. 그녀와 고충호의 손녀라는 음악무용대학 재학생인 해연에 관해서도 제2부에 가서 확실히 밝혀질 것이다.

어느덧 할머니가 되어버린 서홍란은 논문 보관을 위해 찾아온 최준을 만나 증언을 시작한다. 증언에 임하는 그녀의 심정은 4·3으로 희생된 제주사람들의 정서를 적절히 드러내기도 한다.

“듣는 사람은 자료가 필요해서 듣지만 말하는 사람은 체험을 얘기하잖소. 한 번 얘기하고 나면 며칠 동안 가슴이 아파서 잠을 못 자는데 후에 글이라고 쓴 걸 보면 부아가 나기 때문이요. 모두들 그 어떤 논리를 찾느라고 애들을 쓰는데 생활 그 자체에 비해 볼 때 논리란 건 언제나 랭정하고 메마르면서 모욕적인 데가 있소. 학생도 그런 일 때문에 왔겠지요?”

“어머님 말씀이 십분 옳습니다. 저도 앞으로 쓸 졸업논문 때문에 왔습니다. 저의 논문에 피를 주고 살을 주고 산 넋을 주십시오. 괴로우시겠지만 추억 삼아 이야기해 주십시오.”

“추억?...” 하고 너인은 쓸쓸한 표정을 지으며 조용히 입을 떼었다. “귀중

했던 분들이 너무도 많이들 갔지. 한나산과 하많은 오름들, 골짜기마다 그네들이 잠들었지. 그 너른 바다 어딜 가도 그들의 령혼이 울고 있어. 최근까지도 파도에 씻긴 해골들이 해변과 해수욕장들에 나타난 것을 보았다는 사람들이 있다더군… 8만이 갔지. 그런 걸 추억이란 한마디 말로 표현할 수 있겠나? (…)"(81~82쪽)

4·3은 '한 번 얘기하고 나면 며칠 동안 가슴이 아파서 잠을 못 자' 게 될 정도로 괴로운 사태였다. 그래서 '추억 삼아' 얘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4·3의 와중에서 월북하여 살고 있는 제주사람들이 품고 있는 생각이 어떤지를 어느 정도 파악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다.

보패는 종달리 사건의 당사자다. 신혼의 그녀는 경대를 집안에 들였는데 마침 경찰에서 지하신문 『혈하』 추적에 혈안이 되었던 때여서 오해를 받는다. 경찰 두 명이 혼자 있는 그녀의 신혼 방에 침입하여 등사기를 내놓으라며 행패를 부린다. 경대가 산산조각나고 깨어진 유리조각 위에서 그녀는 성적으로 유린당한다. 뒤늦게 들어온 남편은 보패의 처참한 물골을 보고 분개하여 경찰 한 명을 죽여버린다. 이들 부부가 밤중에 마라도로 피신을 하자 이튿날 아침 들이닥친 수십 명의 기마경찰은 50가옥을 불태우고 127명을 학살해버린다. 남편은 곧 입산하였고 외기는 그녀 때문에 쑥밭이 되어버려 혼자 마라도 등대에 숨어 지내기에 이른다. 황폐한 삶을 연명하던 그녀는 지하선거 때문에 마라도까지 잠입한 고진히가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도록 미친 여자 행세를 하면서 헌신적으로 돕는다. 결국 그녀도 인민공화국 건설에 한몫을 한 것이다.

이 작품에서 민중들은 군경에 적개심을 갖고 있으며 무장대에 호의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한라산 것들은 뭇들 하고 있소? 뚱! 벼락 맞을 것들!"(376쪽)이라고 어느 노인이 무장대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는 장면도 있긴 하다. 하지만 이 불만은 원천적인 것이 아니라 오대건 등 김일성장군환영준비위원회 회원들이 처형될 상황에서 구출해주지 않는 데 대한 불만이다.

이렇듯 『한나의 메아리』에는 민중들이 수난상이 곳곳에서 형상화되고

있기는 하다. 그렇지만 민중들의 고통 자체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그런 수난을 안겨다주는 대상들의 악랄성을 드러내는 데 관심이 크다. 이런 점은 그들에 대한 적개심을 고취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경비대와 경찰

국방경비대 김의렬은 김익렬²¹⁾을 모델로 하여 등장하고 있다. 그가 제 주도 출신으로 나오는 점은 실제와 다르지만, 경찰과의 관계라든지 4·28협상을 주도하고 조병옥과 마찰을 빚은 점 등 많은 사항들이 사실에 근거를 두고 있다.

김의렬은 리승진이 “제 보기에 그 련대장이 량심은 있어 보이더군요. 그 때문에 그를 속이며 일하자니 내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87쪽)라고 말할 정도로 선한 심성을 지닌 인물로 나타나고 있다. 일제강점기 때에는 방직회사 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일경에 체포되어 옥살이하는 강규찬을 석방시키는 데 큰 도움을 준 일도 있었다. 그러나 봉기에 대한 김의렬의 생각은 정세에 어둡고 전망이 불투명하다고 작품에서 인식되고 있다.

김의렬은 진정으로 4·3의 조직자, 주도자들을 증오했다. 현 사태의 원인은 군정의 폭정과 조병옥의 경찰, ‘서북청년단’ 패거리들의 지나친 란동에도 있지만 4·3의 주도자들이 이런 불집을 일으키지 않았더라면 ‘국방경비대’가 내란에 끌여드는 일이 없었을 것이 아닌가. 북에서 소련을 추종하는 공산주의자들이(그는 진정으로 이렇게 믿고 있었다) 실권을 쥐 조건에서 ‘남한’ 땅에서만도 ‘단독정부’를 내오고 올바른 정치를 떠나가느라하면 광복 후 립시적으로 조성된 혼란을 극복하고 안정된 생활을 꾸려나갈 수 있다고 생각했다.

21) 김익렬(金益烈)은 1921년 경상남도 하동 태생으로 일본 복지산(福知山) 육군예비사관학교를 졸업하여 일본군 소위로 임관한 바 있고, 1946년 1월 서울의 군사영어학교를 졸업하고 소위로 임관하였다. 1947년 9월 국방경비대 제9연대장(소령)으로 제주에 부임하여 다음해 5월까지 근무하였다. 1969년 육군 중장으로 예편한 후 1988년 사망하였는데, 1997년에 유고 「전장일기」가 「4·3의 증언」으로 소개되었다. 위의 책, 166~167쪽.

김익렬이가 4·3의 주도자들을 경멸한 것은 이 일반적인 정세분석 때문만이 아니라 직접 자기 부대에 끼친 손실이 적지 않기 때문이기도 했다.(209쪽)

거시적인 관점에서가 아니라 국방경비대가 내란에 가입케 됨에 따라 자기 부대가 손실을 입게 된 점 때문에 4·3의 주도자들을 증오하고 있다. 봉기가 일어나자 일본에서 강규찬의 석방을 위해 애써 도와주었던 일을 후회하기도 한다. 김익렬이 심성은 선하지만 다소 옹졸한 면도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는 4·28평화협상(소설에서는 평화회담으로 표현됨)을 주도하기도 하고, “오직 무조건적이고 무자비한 토벌”(329쪽)에만 혈안이 된 조병옥에 맞서다가 빨갱이로 몰리기까지 하는 데서 나름대로 정의감이 있는 인물로 그려진다. 「4·3의 진실」로 발표된 김익렬의 유고²²⁾가 작품 창작에 많이 참조된 것 같다.

경찰의 과장과 일인자인 리명철과 조병옥은 철저하게 악질로 그려진다. 이들은 민족정신과는 철저하게 거리가 있는 인물로서 친일집안에 미국의 주구로 형상화되고 있다. 이는 4·3의 역사적 필연성을 부각시키는 것과 함께 이승만 정권의 비정통성을 강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제주경찰서 감찰과장 리명철은 “난봉꾼에 교활하고 드세찬 인물”(131쪽)이다. 외삼촌 정도언은 일제 때 악질 검사로 유명했는데 1944년 서귀포 해변가에서 강규찬·리승진 등에 의해 피살되었다. 아버지 리병옥은 광주에서 이름난 강간 절도범으로 직업도 없이 다니다가 제주에 와서 뇌물과 협잡으로 산지포 파출소 주임을 역임하면서 약탈과 행패로 명성이 자자했다. 광복이 되는 해에 그는 원한이 가득했던 포구 노동자들에게 못매를 맞아 고향 광주로 도망친다. 리명철 역시 이름난 야구선수로 방망이를 야구장 밖에서까지 마구 휘두르며 제주읍에서 술추렴과 계집질로 직업도 없이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다가 해방이 되자 경찰이 된다. 경찰 입문 과정을 보면 그의 됴됨이와 향후 행로가 확실히 파악된다.

22) 제민일보 4·3취재반, 『4·3은 말한다②』(전예원, 1994), 273~357쪽에 부록으로 수록되었다.

리명철은 팻트릿치가 제주도 경찰고문관으로 파견되어온 이튿날 애비가 입던 경찰복을 안고 제일먼저 그의 관실로 찾아갔다.

“이것은 왜정 때 저의 부친이 입던 경찰제복입니다. 부친은 해방된 이튿날 빨갱이들한테 못매를 맞고 허리병신이 되어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버지를 복수할 수 있게 저를 경찰에 받아주십시오. 고문관님의 한팔이 되어 제주도에서 빨갱이들을 몰아내고 국권회복과 치안유지에 헌신하고 싶습니다.”

그는 즉석에서 제주경찰서 감찰과장 자리를 따냈다. 그는 상전 앞에서 자신의 언약을 착실히 지켰다. 3·1기념행사 때 체포한 사람들을 다루는 데서도 솜씨를 보였고 세화리 비밀아지트를 들춰내어 아홉 명의 지하조직 성원들을 체포하는 공적도 세웠다.(133~134쪽)

미군정에 의해 전격적으로 감찰과장으로 임명된 그는 빨갱이 때려잡는 일이면 물불을 가리지 않았다. 권모술수도 탁월했다. 부용세의 딸 부선화를 연모하던 그는 그녀를 차지하기 위해 여러 수단을 강구한다. 그러던 중 부선화와 결혼하는 것을 조건으로 내세워 고충호(바닷물에 허우적대던 부선화를 구해준 생명의 은인임.)를 석방시켜주기로 약속한다. 그러나 리명철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결국 고충호는 사형장으로 끌려간다.

조병옥²³⁾에 대한 형상화 역시 철저하게 부정적이다. 작품에서 경찰국장으로 나오는 조병옥은 “원 살이 가까와오는 나살에 어울리지 않게 류창한 영어”를 구사하여 “통역정부(군정기간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이 ‘남한’을 좌지우지한 사실을 빚낸 말)”(329쪽)에서 맹활약한다.

이자는 리승만이가 미군정의 요구에 의해 ‘경찰국장’ 자리에 추천한 놈이었다. 이놈은 20대에 벌써 미국에 건너가 와잉노명고등학교를 거쳐 켈리포니아종합대학 교육을 받았다. (...) 당시 형편으로 보면 좌익 및 중도세력이 상당하던 처지에서 미군정은 비록 꼭두각시에 불과하지만 자기 하수인을 고르는 데서 남다른 담력과 광기를 가진 자를 물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리승만이 바로 미군정의 이런 취지에 맞추어 ‘한국’ 정세에 대한 현실주의적 판단이 확고하고 그러한 판단에 토대를 둔 행동에서의 주저와 타협을 모르

23) 趙炳玉(1894~1960). 독립운동가이자 정치가. 미군정 당시 경찰총수인 경무부장으로 재직하면서 4·3 강경 토벌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는 철저한 반공투사' 라는 추천장까지 붙인 것이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었다. 역세계 생긴 네모난 턱, 안경이 귀 박죽에 툭 붙겨져 나온 광대뼈에 삼각 눈... 이 자의 외형 자체가 내면에 숨쉬고 있는 광포한 정신을 잘 반영하고 있었다.(101~102쪽)

철저한 반공주의자며 친미주의자로 미군정의 꼭두각시라는 것이다. 외형과 행색의 묘사에서도 부정적 이미지가 가득하다. "오직 무조건적이고 무자비한 토벌로 대처해야 한다"(329쪽)고 주장하면서 그는 자신의 방식에 따르지 않는 자는 빨갱이로 몰아붙여 4·28협상을 주도한 김의렬을 축출해낸다.

이렇게 볼 때 경비대는 김의렬에 의해 다소 호의적으로 그려진 반면 경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부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다(물론 경비대도 김의렬을 제외하고는 부정적으로 그려졌다.). 봉기지도부를 영웅화하는 북한소설에서 무장대에 대한 토벌을 맡은 당사자들이 부정적으로 그려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절대적으로 형상화되면서 인물의 생동감이 감소되고 있다.

4) 미군

북한의 일반적인 입장대로 이 작품에서도 미국에 대한 적개심이 노골적으로 표출되고 있다. 4·3에 대한 미국의 책임론 역시 매우 강하게 제기된다. "조선에서의 분렬을 영구히 고착하고 동북아시아지역에 군사적 보루를 축성하기 위한 정치군사책략의 거성인 백악관과 펜타곤 앞에 뜻밖에도 한나산이 일떠선 격"(201쪽)이라며 미국의 한반도에 대한 전략과 관련하여 4·3의 의미를 명시한다. 4·28협상을 깨뜨리는 결정적 사건이 있던 5월 1일의 오라리사건이나 5월 3일의 귀순자 200여 명에 대한 사격 사건은 전적으로 미군정이 조작한 것으로 단정한다.

미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인물로는 경찰고문관 팻트릿치, 제주도계엄사령관 브라운, 미군정장관 아놀드, 제주도군정장관 맨스필드 등 4·3을 전

후하여 실제 활동했던 인물들이 등장한다.

특히 팻트릿치는 작품에서 주요 인물 중의 하나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그는 리명철을 통해 소개받은 정명월 여인을 통해 왕성한 정욕을 해소한다.

제주정로의 룡담음식점 너주인 정명월은 팻트릿치의 변태적인 욕욕의 구미를 맞추느라 신물이 났지만 오늘도 전화를 받고 바다가로 가고 있었다. 어디서 살인을 치르고 온 날은 더했다. 그런 날이면 깊은 밤에도 불려내 요트정에 태워 외딴 섬에 데려가서는 알몸둥이로 만들어 모래불과 바위등을 옮겨가며 욕욕의 광란적인 쾌락과 얼버무리느라고 이 녀자의 육체를 시달림시켰다. 며칠 전에는 바다물에까지 끌고 들어가기에 하필이면 왜 차거운 바다에 끌어들이느냐고 양탈을 썼더니 “바다물은 제주도 폭도들의 피가 섞여 출지 않다. 오늘도 새파랗게 젊은 청년을 수장했으니 목욕탕 물처럼 더울 거다.” 하며 무작정 자빠뜨렸다.(307~308쪽)

팻트릿치가 변태성욕자에다가 악랄성을 겸비한 인물로 등장하고 있다. 바닷물이 제주도폭도들의 피가 섞여 출지 않다고 말하는 부분에서 그런 점이 확실히 드러난다. 그는 신 명의 경찰을 끌어들여 고충호 등을 도래 굽이 앞바다에서 처형하기도 했다. 그 일은 자신의 명을 재촉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고충호의 애인 서홍란은 복수를 결심한다. 그녀는 정명월 대신 팻트릿치를 만나서 서울 사는 외사촌동생인데 언니를 대신해서 나왔다고 속이고는 요트를 타고 바다로 나가 처단해 버린다.

소설에서는 이렇게 팻트릿치가 1948년 4월에 제주도에서 희생되는 것으로 나오지만 사실 실제 경찰고문관으로 제주에 근무했던 팻트릿치(John S. Partridge) 대위는 당시에는 제주에 있지 않았다. 그가 제주에 근무한 기간은 1947년 2월부터 1947년 12월까지였기 때문이다.²⁴⁾ 팻트릿치의 경우도 작가가 의도하는 바에 따라 완전히 재배치된 인물인 셈이다.

1948년 4월 5일 부임한 제주도계엄사령관 브라운에 관해서는 '쇠몽둥

24) 허호준, 「제주4·3의 전개과정과 미군정의 대응전략에 관한 연구」(제주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03), 162쪽 참조.

이'라는 별명을 지녔으며 '미국식 만용과 오만성애다가 무자비한 실천력까지 겸비한' 인물로 그려낸다.

말이 적으면서 실천력이 강하고 무자비한 이 자는 하지 사령부에서 '쇠몽둥이'라는 별명으로 불리워지고 있었다. 군단의 점령지들에서 원주민들의 소요와 저항이 있을 때마다 하지는 그 진압의 믿음직한 적임자로서 이 자를 택하곤 했다. 필리핀과 부르네이군도의 여러 섬들에서 '쇠몽둥이'로서의 자기의 기질을 남김없이 보여주어 그곳 원주민들 속에서 공포의 대상으로 악명을 떨쳤다.

미국식 만용과 오만성애다가 무자비한 실천력까지 겸비한 이자가 제주도 에 온 것 자체가 얼마나 무섭고 참담한 일인가를 제주도 사람들은 모르고 있었다.(216쪽)

미국에게 제주사태의 진압은 점령지에서 원주민의 소요를 진압하는 것일 따름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는 결국 "계엄사령관인 나는 원인에는 조금도 흥미가 없소. 나의 사명은 무자비한 진압뿐이요!"(218쪽)라며 초토화작전을 강하게 주장한다. 대량학살의 가장 큰 책임은 미국이 질 수 밖에 없음을 이 작품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미군들은 공히 탐욕에 가득차 있는 공격적인 인물로 형상화되고 있다. 이는 미국의 음흉한 제국주의적 마수가 작용하여 폭발한 것이 4·3임을 강조하려는 의도와 직결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5) 북의 지도자

김일성이 실제 작품 속에서 행동하는 것은 뒷부분에 국한되지만, 작품 전반에 걸쳐 중요한 의미의 인물로 부각되고 있다. 김일성은 앞에서도 살펴본바와 같이 봉기를 주도한 강규찬의 행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 인물이다. 무장대 전체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다. 라디오를 통해 중계된 김일성의 연설은 무장대에게 "항로를 몰라 애타하던 4·3인민봉기의 앞길에 투쟁의 방향과 목적, 침로를 밝"혀 주었으며 "남북총선거의 의의와 필요성

뿐만이 아니라 그 방법과 방도에 이르기까지 명백히 밝혀”(352쪽) 준다.

지하선거를 치른 후 강규찬 등은 평양에서 김일성을 만난다. 다음은 최고인민회의를 앞두고 김일성이 강규찬에게 한 말이다.

“동무들이 지퍼 올린 4·3인민봉기는 미제의 식민지통치와 조국의 분열을 막기 위한 정의로운 투쟁이요, 동무들은 놈들의 <5·10단선>을 파탄시키고 8월 선거를 훌륭히 치르었소. 동무들의 투쟁의 결과 우리가 창건할 공화국의 법적 담보가 완전무결한 것으로 되었으며 미제의 식민지통치를 거부하고 분열을 허용치 않으려는 우리 인민의 의지를 과시하였소. 생각해 보오, 4·3인민봉기는 광복 후 남반부에서 미제를 반대하는 첫 무장봉기요, 나는 동무들의 투쟁을 높이 평가하오. 동무들과 제주도인민들의 투쟁은 광복 후 남조선에서의 반식민지, 반분열주의 첫 무장봉기로서 조국력사에 길이 빛날 것이요, 그러나…” 하고 장군님께서서는 잠시 말씀을 끊으셨다가 조용한 목소리로 계속하시었다.

“솔직히 말해서 4·3인민봉기가 터졌다는 소식을 듣고 정치가로서의 기쁨보다 괴로움이 앞섰소. 봉기의 운명, 제주도인민들의 운명이 걱정스러웠던 거요. 의의도 크고 봉기 자체도 필연적이었지. 하지만 그것이 그처럼 많은 생명의 대가로 얻어지는 것이라면…그러한 필연이라면? 하고 생각했소. 나는 그 모든 필연과 의의도 주체는 인민이라고 생각하오. 물론 력사의 필연은 엄혹한 것이요. 때로는 많은 희생을 요구하오. 그 객관적인 인식에 기초해서 정치가들은 수많은 피의 대가로 진리를 개척해 나간다고 자부하고 있소. 하지만 나 김일성이란 사람은 달리 생각하오. 제주도 4·3인민봉기소식을 듣고 나는 온밤을 새우며 이런 생각을 했소. 그 혹독한 <필연>을 조종할 수 없는가. 될수록이면 적게 희생을 내며 력사적인 과업들을 이룩할 수는 없는가.(…)”(407~408쪽)

김일성의 발언은 바로 4·3에 대한 북한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볼 수 있다. ‘광복 후 남반부에서 미제를 반대하는 첫 무장봉기’, ‘반식민지, 반분열주의 첫 무장봉기’로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봉기 자체는 제주도당 차원에서 스스로 결정한 것임도 김일성의 말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다. 다만 많은 희생이 안타깝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김일성은 “인간성을 떠난 그 어떤 력사적 사명이나 위업도 인정하지 않

소. 우리가 것처럼 갈망하는 조국통일도 결국은 인간성의 승리로 되어야 하오. 우리가 창건하는 공화국도 그 인간성의 보루이며 성새요.”(408쪽) 라고 언급하고 있다. 김일성은 혁명영웅이면서 휴머니스트라는 점이 강조되고 있는 셈이다.

북의 지도자로는 오성민도 등장한다. 그는 현재 고원에 거주하는 인물로 행정부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 1948년 9월 평양에서 개최된 공화국 창건을 위한 최고인민회의 제1기 제1차 회의를 전후해 강규찬·고진히 부부를 처음 만난다. 그가 4·3과 관련된 인물은 아니지만, 38선을 가까스로 넘어 평양에 당도한 고진히를 회의장에 데려간다. 그는 최준오에게 강규찬·고진히 부부의 진실을 바로 증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전반적으로 볼 때 이 작품에서는 주로 월북한 4·3 관련자들을 중심으로 놓고 그들의 활동과 직결되는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다. 특히 실존인물들은 그 이력을 따라 그대로 그려낸 것이 아니라 상황에 맞게 새롭게 배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맺음말

양희선의 『한나의 매아리』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는 작품이다. 하지만 아직 제2부가 발표되지 않은 시점에서 그 개관과 구도를 검토하고 일단 인물들을 중심으로 북한의 4·3 인식을 살펴보는 수준에서 논의를 전개하였다.

이 소설은 강규찬·고진히 부부의 4·3에 얽힌 삶에 대해 남한 출신인 김일성대학 역사학부 졸업생 최준오가 그것에 대한 진실을 추적하는 과정을 과거와 현재의 두 축을 토대로 다루고 있다. 작품 전체 구도로 볼 때 4·3에 대한 북의 시각이 민주기지론을 바탕으로 하는 통일투쟁이라는 관점임을 보여주고 있다. 유혈사태가 본격화되는 1948년 10월 이후의

제주상황은 배제한 채 4·3봉기에서부터 5·10단선 반대와 지하선거를 거쳐 9월의 평양으로 이어지고 있는 사건 줄기를 설정한 점은 작가의 그런 의도에 따른 것이다.

인물형상화에서 보면, 월북한 4·3 관련자를 중심에 놓고 그들의 활동과 직결되는 인물들이 다루어지고 있다. 실존인물들은 그 이력을 따라 그대로 그려낸 것이 아니라 상황에 맞게 새롭게 조정하여 배치되고 있다. 봉기지도부인 경우 김달삼에 비해 리덕구가 소략하게 취급되고 있는데, 이는 제주사람들의 희생보다는 인민공화국 창건이라는 명분에 기여한 사건으로 4·3을 부각시키려는 북한의 의도에 부합되는 것이다.

제주민중의 경우에 토벌대와 무장대 사이에서 좌충우돌하는 제주민중들의 양상은 거의 보이지 않고 토벌대에 희생됨에 따라 그들에 적개심을 갖고 무장대에 적극 협조하는 인물이 주로 형상화된다. 반면 경찰은 민족정기를 팔아먹는 제국주의의 주구로 형상화되고 있는데, 이는 4·3 봉기의 역사적 필연성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미군이 탐욕에 가득차 있는 공격적인 인물로 형상화되고 있는 이유는 미국의 음흉한 제국주의적 마수가 작용하여 폭발한 것이 4·3임을 강조하려는 의도와 직결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소설에서 특히 눈여겨볼 인물은 강규찬과 고진희 부부다. 이들의 경우 각각 견지하던 투쟁일변도 노선과 인간성 중심의 사고가 상보적으로 결합되는 양상으로 그려지고 있는 점은 작품 말미에 나타난 김일성의 지론과 일치하는 것이다. 따라서 작가의 메시지는 두 인물의 변증법적 통합 양상을 통해 인간성을 바탕으로 투쟁과 혁명에 앞장서는 인물을 이상적인 형상으로 제시하려는 데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에서 양의선의 『한나의 메아리』 제1부를 중심으로 북한의 4·3 인식이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살펴보았지만, 그 전모가 드러난 것은 아니다. 주요 인물의 활동이 지리산유격투쟁으로 이어지는 제2부가 함께 논의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 온전한 면모를 파악하는 논의는 현재로서는 후고를 기약해 둘 수밖에 없다.